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청렴윤리 실천 선언 행사 개최

- 청렴 문화 정착 위한 전 직원 참여형 선언식 진행 ‘나만의 청렴서약서’ 작성·선언문 게시로 조직 내 윤리 강화 범필재 지사장 “청렴 내재화·신뢰 형성에 1석 2조 효과” 강조

2025.08.20 16:23 입력



▲좌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범필재 지사장이 직원들에게 ‘나만의 청렴서약서’를 전달 우)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정문 출입구에 게시된 “상호존중 청렴윤리실천 선언문”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윤리 실천 선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반부패·불공정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청렴경영의 내실화를 다졌다.

행사는 8월 20일 수요일 목포무안신안지사에서 열렸으며, 임직원 전원이 정문 출입구에 게시된 ‘상호존중 청렴윤리 실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직원들은 각자 ‘나만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해 윤리 의식 내재화에 동참했다. 또한 ‘갑질 예방 교육’이 병행돼 청렴과 인권 존중의 실천 방안이 강조됐다.

범필재 지사장은 “그간 추진해온 ‘청렴이행각서 교환식’과 ‘청렴경영 현장직독함’은 청렴문화 공유와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목적이었다”며 “이번 선언 행사는 청렴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선언문을 통해 대내외에 공유하는 만큼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올해 ‘청렴경영 MMS(목포무안신안): M-마음에서, M-민심까지, S-신뢰형성’을 경영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상반기에는 청렴이행각서 교환, 청렴메시지 전파, 현장직독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청렴 슬로건 공모전’, ‘임직원 청렴 수준 진단 평가’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와 고객 신뢰 형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사는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실천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박진성기자 s9611006@hanmail.net